

【서평】

『변증법적 이성비판』

—실존주의와 맑스주의의 조화—

박 정 태

뛰어난 문필가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사르트르는 사실 우리네 용어로 말하자면 ‘지독한 빨갱이’이기도 했다. 비록 프랑스 공산당의 정식 당원으로 활동한 적도, 프랑스 공산당의 우호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아니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로 프랑스 공산당의 공격 1호로 낙인찍혀 공격을 받았지만, 사르트르는 맑스주의에 경도된 이후 단 한 번도 맑스주의의 이상을 버린 적이 없었다. ‘사르트르적 맑스주의’ 또는 ‘사르트르적 혁명론’을 담은 책 『변증법적 이성비판』이 이제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물론 책 자체의 방대함(1권 941쪽, 2권 469쪽)과 난해함,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르트르의 이런 왼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성향 때문이기도 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이 땅에서 맑스, 맑스주의라는 말이 묻지마식 빨간 딱지의 역할을 했음을 상기한다면, 이 책의 우리말 번역이 이토록 늦어진 이유가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르트르 연구는 그의 전기 사상에 과도하게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변증법적 이성비판』의 우리말 번역과 출판은 그 의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후기 사상을 집약한 『변증법적 이성비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토대가 이번 우리말 번역본의 출판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그간 우리에게 한 쪽으로만 치우쳐 연구되었던 사르트르의 사상이 비로소 온전

하게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전기 사상은 사르트르를 단번에 실존주의의 총아로 만든 책 『존재와 무』로 대변된다. ‘현상학적 존재론의 시도’라는 부제에 걸맞게 『존재와 무』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현상학적 존재론을 담은 책이다. 사물(즉자)과 비교하면서 인간(대자)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일, 또 이렇게 파악된 인간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 사이의 관계(대타관계)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존재와 무』의 주된 작업을 이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에 사르트르의 후기 사상을 대변하는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존재와 무』가 다루지 않았던 역사와 사회를 주목한다. 즉 인간과 사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인간들이 구성하는 집단, 그리고 한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의 변화과정을 역사와 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시선이 이처럼 개별적 인간으로부터 집단이라는 인간 공동체 및 역사, 사회로 옮겨간 이유는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의 경험과 맑스주의와의 만남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이 ‘이상한’ 전쟁과 1년이 채 안 되는 스탈라그에서의 포로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역사 속 인간들의 연대성을 체험했으며, 현실 정치와 맞물린 맑스주의와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계급투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프랑스 공산당은 사르트르를 적으로 대했다. 그것도 그냥 만만한 다수의 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당시 그가 대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기에 그 만큼 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적 1호로 말이다. 정통 맑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보기에 사르트르는 분파주의자에 다름 아니었다. 맑스주의자들은 사르트르가 역사와 사회의 차원을 무시하고 오로지 실존적 개인의 차원만을 내세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반면에 사르트르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조적 맑스주의(예를 들어 스탈린주의)의 폐해를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저녁나절 포도주에 취한 노동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혁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요컨대,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혁명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자유의 실천이었던 것이

다. 양자의 이 같은 차이는 특히 혁명과 관련된 다음의 논제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혁명의 동력을 맑스주의자들은 결정론적 법칙(유물론적 변증법)에서 찾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의 초월성(자유)에서 찾았다.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초월이자 자유라는 것,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결코 결정론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혁명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리 없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가 보기에 진정한 노동자는 인간의 초월성을 따라 행위하는 노동자, 지금의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현실을 거부(초월)하기 위해 혁명적으로 결단하고 혁명적으로 행위하는 노동자다. 말하자면 인간의 초월성을 따라 실존하는 노동자야말로 진정한 노동자인 것이다. 이처럼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역사 속 혁명의 동력은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결정론적 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초월성, 즉 인간의 자유다. 다음으로 혁명의 주체를 맑스주의자들은 계급에서 찾았지만 사르트르는 실존하는 개별자에서 찾았다. 물론 사르트르 또한 혁명을 위해서는 개별자들이 모인 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집단은 결코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실체로서의 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개별자들의 주체성들에 근거한 결속체다. 왜냐하면 사회란 실존하는 개별자들의 다양한 주체성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혁명을 위해 필요한 집단의 형성 역시 오로지 실존하는 개별자들로부터 출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적 주체성과 집단적 주체성이라는 이 두 주체성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는가가 혁명의 성취를 염두에 둔 사르트르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사르트르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맑스주의를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보정함으로써 맑스주의와 혁명에 충실코자 하는 자기 고유의 길을 걸어 나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사르트르는 그 당시 사회의 오른쪽 진영(주로 카톨릭 교파를 중심으로한 진영)으로부터도 그랬지만, 왼쪽 진영으로부터도 그에 못지않은 심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굳어버린 맑스주의를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보정함으로써 맑스주의와 혁명에 충실코자 하는 사르트르

의 이 고유한 노력, 이 장엄한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권을 구성하는 ‘방법의 문제’와 ‘실천적 총체들의 이론’, 그리고 2권을 구성하는 ‘역사의 가치성’이 그것이다. 우선 ‘방법의 문제’에서 사르트르는 굳어버린 맑스주의를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보정코자 하는 자신의 시도를 방법론의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그에 따르면, 맑스주의는 어떤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나 사회의 역사를 꿰뚫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사회의 역사를 창조하는 실질적 주체인 개별적 인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역사 창조의 주체이자 혁명의 주체인 실존하는 개별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에서 큰 장점을 지니는 실존주의, 사회학, 정신분석학 등으로부터 유용한 분석 도구와 학문적 성과를 들여와 맑스주의를 방법론적으로 보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총체들의 이론’에서 사르트르는 혁명의 성취와 설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즉 개별적 주체성과 집단적 주체성이라는 두 주체성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가라는 과제의 해결에 매달린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르트르는 주변의 물질세계를 지속적으로 초월하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개별적 주체인 인간이 자신과 동일한 물질세계 속에 사는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서 역사, 혁명, 가치 창조의 또 다른 주체인 집단을 과연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변증법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실존하는 구체적 개별자들 → 집렬체 아래 단순하게 병렬된 군집을 이루는 개별자들 → 이타성이 아니라 우리들에 의해 지배되며 완벽한 상호성에 의해 매개되는,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체가 오로지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만 존립하는 융화집단 → 성취된 혁명의 감격과 집단의 영속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서약집단 → 구성원들의 결속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타성(어떤 하나를 정점으로 한 조직)을 집단에 다시 들여오는 조직화된 집단 → 조직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화된 집단(국가)’이라는 ‘집단의 형성과 와해의 운동과정’은 바로 이런 탐구의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가지성’에서 사르트르는 역사의 진행 속에서 진리의 문제를 다룬다. 즉 역사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집단의 형성과 와해가 보여주는 이 같은 순환운동을 우리가 과연 인식할 수 있는가, 만약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사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인간들이 구성하는 집단, 집단에서 집단으로의 변화과정을 역사와 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작업, 이른 바 ‘인간,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라는 사르트르의 거대한 작업이 완성된다.

이렇게 본다면, 감히 단언컨대, 『변증법적 이성비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오로지 우리가 이 책을 『존재와 무』와의 연속성 속에서 고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굳어버린 맑스주의를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으로 보정한다고 할 때의 바로 그 철학이란 『존재와 무』에 집약된 실존주의 철학과 다른 것이 아니며, 또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혁명의 실질적 주체로 거론되는 실존하는 개별자 역시 『존재와 무』에 기술된 자유로서의 인간 존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이성비판』과 『존재와 무』의 이 같은 연계성에 대해서 앞으로 행해질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는 우리를 사르트르의 사상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도 풍요로운 이해로 인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 또는 윤리 차원에서의 사르트르 연구가 그럴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미 『존재와 무』를 마무리하는 장에서 도덕적 전망에 관한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다. 비록 그 약속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내놓고자 했을 도덕이 어떤 것인지 대략은 안다. 물론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더해져야만 하겠지만, 그가 우리에게 내놓고자 했을 도덕은 『존재와 무』에 소묘된 개인 차원의 도덕과 『변증법적 이성비판』에 소묘된 집단 차원의 도덕으로 그 짝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처럼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존재와 무』와 더불어서 사르

트르의 사상을 온전히 구성하는 두 축으로서 기능한다. 한편 『변증법적 이성비판』의 또 다른 의의 또는 중요성은 사르트르 자신을 통한 20세기의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 마치 사르트르가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예를 통해서 당시의 역사를 인식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사르트르의 생애와 그의 책 『변증법적 이성비판』을 통해서 20세기에 대한 인식을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세기인 20세기를 그 한 복판에서 투쟁적으로 살아온 실존주의 지식인이 바로 사르트르이며,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연구서가 바로 『변증법적 이성비판』이기 때문이다.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번역과 관련된 사실을 꼭 언급하고 싶다. 이번에 출판된 우리말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위에서 언급한 책 자체의 학술적 의의와 중요성 외에도 여러 장점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장점이 번역과 관련된 장점이다.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우선 그 방대한 양이 우리를 ‘질리게’ 한다. 그 양이 자그마치 1천 4백여 쪽에 달하니 말이다. 게다가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유난히 긴 문장과 지나친 반복, 부정확한 문장, 그 내용의 난해함으로도 ‘악명’이 높다. 하지만 이번에 출판된 우리말 『변증법적 이성비판』은 번역상의 이 모든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극복한 훌륭한 번역서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일단 이 책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르트르 연구자들 대부분이 참여한 공동 번역서다. 번역을 해본 사람은 안다. 단어 하나의 우리말 번역어 선택, 애매한 문장 하나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르트르 연구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동으로 번역작업을 했다는 것은 이 책의 번역상의 가치를 충분히 증거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자는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서 이 책의 뛰어난 가독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정확하고도 일관된 번역의 증표인 ‘용어 찾아보기’의 혜택 또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이 책을 읽을 때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하는 친절하기 그지없는 ‘옮긴이 해

제’도, 책의 뛰어난 편집도 빼놓을 수 없다. 옮긴이들은 이번에 출판된 우리말 『변증법적 이성비판』이 적어도 영어 번역본이나 일어 번역본보다는 훨씬 나아야 한다는 생각 아래 번역 작업을 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고도 했다. 그 말 백번 옳다고 전해주고 싶다.